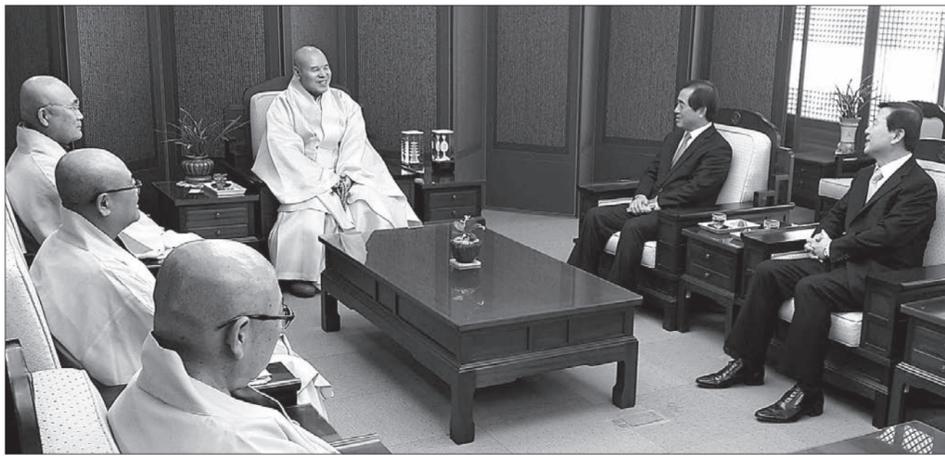


“초심 잃지 않고 사회중심 잡아주길”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 재임 “교육·출판, 전문인력도 확보”

서울고법·중앙지법원장
설 선물 화답·소통차원
총무원장스님 예방 환담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6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과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두 법원장은 이 자리서 총무원장스님의 설날 선물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3년간 정책 연구와 함께 대사회적 의제를 불교사상으로 재해석해 대안을 제시하며 연구소의 기틀을 다졌다. 앞으로 연구의 성과를 이어나가고 연구사업과 더불어 교육, 출판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소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중장기적으로 불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과 중단이 수행교단으로 가기 위한 정책 연구에 주력하겠다”며 “특히 종단개혁 20주년을 맞아 각 분야별로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고 우리사회 시대정신에 맞춰 앞으로 20~30년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의제, 쟁점, 갈등에 대한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호국불교의 개념과 활동을 정리하는 연구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불자들의 수행을 돕기 위한 수행체계 연구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6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과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조계종 법원장은 먼저 “올해 설날 선물로 보내주신 책은 잘 받았다”면서 “올해까지 4년째 잘 받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잘 읽고 얻는 것도 많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많은 종류의 선물이 있지만 책은 바쁘면 서재에 잘 보관해서 두고 오랫동안 볼 수 있어 매년 사회각계 인사에 책을 선물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서울 지역과 수도권 등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과 전국 최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들이 동시에 총무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불교를 비롯해 가톨릭, 개신교 지도자를 차례로 예방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템플스테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갖춰져 있어 직원들의 힐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에 템플스테이를 할 만한 사찰이 많으니 활용해 보길 바란다”고 추천했다. 이에 이성호 법원장은 “실제 법원 관련 종사자들은 과중한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자승스님은 “사회의 중심은 공정한 법원 판결에서 나온다”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는 큰 어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병현 법원장은 “사부대중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예방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스님, 사서실장 심경스님, 정책특보단장 정념스님 등이 배석했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많은 사람 행복하도록 함께 노력”

총무원장 스님, 노력 당부
중앙종무기관 신년하례식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5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부설기관 신년하례에서 34대 집행부의 과제들을 정리해 가며 사회에 희망을 전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돌아보면 지난날이 항상 미흡하고 어렵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비로웠고 노력했기에 많은 일들을 원만하게 감당해 왔다”면서 “이러한 여러분의 마음은 새해에도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 한해 종단이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들의 실현을 위해 종무원들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자승스님은 “이제 34대 집행부의 구체적인 과제들을 하나둘 정리해 나가면서, 바로 우리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야한다”면서 “무겁고 힘든 과제들 앞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자신감으로 서로를 믿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는 것만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획하

고 얼마만큼의 정성으로 실천할 것인가가 진정한 새로움이라는 것을 종무 현장에서 잘 느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년하례에는 교육원장 현승스님, 포교원장 지원스님을 비롯한 교역직, 일반직 종무원 300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 전에 3배로 새해인사를 올리고 덕담을 나눴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미타사, 아프리카 학교건립에 성금 ‘동참’

아름다운동행에 1000만원

서울 미타사(주지 성현스님·사진)는 지난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기금 전달식을 갖고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 미타사가 전달한 기금은 대중스님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동행이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을 위해 사용된다.

미타사 주지 성현스님은 “아프리카의 현실을 접하고 대중스님



들이 마음을 모아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금 전달에 동참하게 됐

다”며 “종단에서 아프리카 학교 건립사업에 나서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모금이 쉽지 않은데 건립 기금 모금에 동참해줘 감사하다”며 “스님들의 정성을 모아 아프리카 학교건립 사업을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탈원전 시대 사찰’ 불교역할 토론회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스님)는 오는 12일 오후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탈원전 시대의 사찰에너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원자력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사찰에너지 절감 대책 등 탈원전 시대 불교계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원전안전과 에

너지 대안’을, 이병인 부산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교수)가 ‘사찰에너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정희정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단 반장과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이 토론자로 나서 불교계에서 실천가능한 에너지 대안과 절감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며, 참가자들의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사회국장 설암스님
호법국장 해만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사회국장에 설암스님(왼쪽), 호법국장에 해만스님(오른쪽)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인 사회국장 설암스님과 호법국장 해만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했다.

화광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설암스님은 1994년 법아사에서 정관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재무국장, 호법국장을 역임, 강릉 용연사 주지를 맡고 있다.



해만스님은 철안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8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만스님은 1994년 법아사에서 정관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재무국장, 호법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두천 자재암 주지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4월8일 직지사서
구족계 수계산림

제34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이 오는 3월20일부터 28일까지 제8교구본사 직지사서 열린다. 수계대상은 2010년 3월까지 사미계 또는 식차마나니계를 수지하고, 종단 기본교육기관을 졸업자 및 예정자, 또는 1994년 이전 출가자로 선원 8만 거를 성만한 예비승 등으로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1일까지며, 재적 교구본

사로 접수하면 된다. 직황교구 재적스님의 경우 교육원 교육부에 접수한다.

이와 더불어 오는 4월8일부터 11일까지 수원 봉녕사에서 제22회 단일계단 식차마나니계 수계산림을 연다. 수계대상은 2012년도까지 사미니계를 수지한 사미니로서 기본교육기관 3학년 재학생, 선원 4만거 성만, 종현·종법상 수계자격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21일까지며, 재적본사를 통해 총무원 총무부로 접수하면 된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2월5일 총무회의)



도안스님 서울 보문사



정일스님 천안 보문사



원돈스님 함양 벽송사



본공스님 진천 광역사



일주스님 서울 미타사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法住寺

www.beopjusa.org



문의 : 043)543-1574(3615) 교무과
전송 : 043)543-3620
전자우편 : spring@beopjusa.or.kr

2014학년도

속리산 법주사는 초사제일 가람이며 전통교학의 중심도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수행 할 신심과 원력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법주사 승가대학 학인모집

- 모집기간 2014년 2월 15일 - 3월 21일까지(신입생/편입생)
- 모집대상 치문반(입학생) / 사진, 사교, 대교(편입) 0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사소정양식).....1부
 - 은사스님추천서.....1부
 - 승려증(수계증명서, 행자교육필증).....1부
 - 주민등록등본.....1부
 - 사진 3x4(만의·장삼착용).....3장
- 준비물 대가사(비구), 만의(사미), 장삼, 발우
- 전형 수시 서류심사 및 면접
- 특전 전학년 교재비 및 장학금 지급

법주사 승가대학장 진원

선학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신입생모집

- 모집인원 상주형 00명 / 개방형 00명
- 응시자격
 - 상주형 : 비구스님(2014년도 비구계수계 대상자 포함)
 - 개방형 : 비구·비구니스님(통학형)
 - 전통강원 또는 동등교육기관(중단 인정 기본교육기관) 졸업자 및 예정자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 접수기간 2014년 2월 24일 월요일까지 서류 접수 마감
- 전형일 2014년 3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법주사 심검로
- 개강일자 2014년 3월 20일 목요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사 비치, 본사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
 - 수행이력서
 -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
 -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
 - 사진(3x4) 2매
- 특전
 - 졸업 후 조교수 자격부여
 - 연구논문비 지원
 - 매월 연구비 지원
 - 졸업 후 해외 유학비 지원
 - 연회 해외 수선중사할 탐방

법주사 선학승가대학원장 청원